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5월 7일 (토) 제 1582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교회답게!

5월 15일 성령강림주일...오순절 역사, 교회공동체와 성도의 삶에서 뜨겁게 일어나야

성령강림주일은 부활주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시작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동력 있는 삶을 강조하는 기간이다. 이와 함께 부활일로부터 50일째(승천일로부터 10일째)에 해당되는 주일을 기점으로 한 주간을 성령강림과 교회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령강림주일로 지켜왔다.

성령강림주일은 성령께서 제자들 위에 임하시고, 그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 여러 언어로 말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 14절이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렇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도망갔던 사람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해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다. 그저 눈물만 흘리던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된다. 제각기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복음을 전한다.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됐다. 이제는 근심, 걱정, 두려움을 버렸다. 이기심과 욕심도 버렸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친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변화시킨 일이다.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세례를 받는다. 예수를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성령을 어떤 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로,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생활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다. 사단이 이끄는 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한 것같이,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람들을 가로 막고 있는 그 어떤 장벽도



뛰어 넘고, 모든 것이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즉, 사랑하는 일, 복음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등 그 모든 일들을 하도록 인도하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믿을 수 없으며, 믿음생활도 할 수 없다. 오순절 성령강림은 성도들을 새로운 신앙으로 출발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며,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의 문을 여는 위대한 일이었던 것이다.

물론 성령께서는 성령강림절 이전이라고 해서 전혀 역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의 활동이나 특별한 경우에 활동하신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예

수님의 생애와 사역 속에서 성령은 늘 함께 하셨다. 예수의 공생애는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예수 위에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머무셨던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임하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 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 성령강림 이후에는 성령께서 주님을 믿는 성도 모두에게 오셔서 역사하신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은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시키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

<3면으로 계속>

미국이 가장 위대했던 시절은 언제인가?

NY타임스, 트럼프지지자, 공화/민주당원 설문결과 상반된 차이 드러나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 슬로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이다. 뉴욕타임스(NYT) 지지자들에게 언제 미국이 가장 위대했는지 물었다. 답은 제각각이었다. 9.11 이전이라고 답한 사람이 많았지만 다른 시기를 언급한 지지자들도 많았다(When Was America Greatest?).

트럼프의 캠페인 슬로건은 미국이 더 강하고 번영했던 시기를 상기시킨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이 위대했던 때가 1950년대인지 아니면 10년 전인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다. 이런 모호함은 그의 지지자들의 응답에도 드러난다. 미국이 위대했던 시기를 고르라고 하자,

나왔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공화당 지지자의 과반이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더 열성적이었다. 75%가 1960년대 중반이 지금보다 더 나왔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과거에 대해 공화당 지지자보다는 열성적이지 않았다. 48%가 과거가 현재보다 더 나왔다

공화-레이건 시절, 민주-오바마 꿈아 "50년전 삶이 더 나왔다" 공화 75%, 민주 48%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9.11 발생 직전인 2000년을 골랐다. 하지만 1955, 1960, 1970, 그리고 1985년 역시 인기 있는 응답이었다. 2% 정도가 트럼프가 캠페인을 시작한 2015년을 가장 위대한 해로 뽑았다. NYT는 트럼프 캠페인 본부에 언제 미국이 가장 위대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퓨리서치 여론조사는 미국인들에게 현재보다 50년 전의 삶이 더

고 말했고 17%는 별 차이 없다, 그리고 28%는 현재가 더 낫다고 말했다. 정치학 연구들을 보면, 미국인들이 현재에 대해 느끼는 낙관주의는 현재 집권 정당이 어딘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것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지지자들보다 현재를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월간광야" 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대표 박희성 목사 myong@joenchulpan.com



5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16면
인/터/뷰
박성진 학장

'한 영혼 살리기 말씀축제'

포틀랜드성결교회 춘계 부흥성회

주제: 일어나라, 함께가자 '마 26:46'

일시

2016년 5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
21일(토) 새벽 6시, 오후 7시 30분
22일(주) 오후 12시, 오후 2시 30분

장소

포틀랜드성결교회 (Korean Evangelical Church of Portland)
4729 SW Taylors Ferry Rd, Portland, OR 97219
전화: 503)244-9191 323)559-9811(C)



강사: 이정근목사
(유니온교회 원로/미성대 명예총장)



담임: 구자민목사

포틀랜드성결교회

(Korean Evangelical Church of Portland)



동부교계 기사판

east

뉴욕교협, 에과도르 지진피해 구호헌금 모금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가 에과도르 지진피해 긴급 구호헌금을 모금하며 회원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있다.

담임목사 청빙
토론토빌라델비아장로교회(KAPC 교단)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장로교단 인정 정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경력 5년 이상

예장(합동) 해외총회 제 38회 정기총회
대한예수교장로교회(합동) 해외총회(총회장 엄기환 목사) 제 38회 정기총회가 5월 23일(월) 오후 4시부터 25일(수) 정오까지 뉴저지 주 예수사랑교회(담임 강유남 목사)에서 열린다.

가족 일일 부흥회
뉴저지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최중대 목사)가 러브뉴저지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가족 일일 부흥회'가 갖는다.



이노비 회원들과 뉴저지 초대교회사역부

이노비-뉴저지초대교회, 공동 무료 식사 공연

이노비(EnoB, 대표 강태욱)가 뉴저지 초대교회(담임 한규삼 목사) 기관 사역부와 함께 지난 26일 낮, 할렘에 위치한 소울세이빙 스테이션을 찾아 할렘지역 노숙자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무료식사

이런 공연은 한국은 물론 뉴욕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 재즈 뮤지션들이 참여해 공연을 펼쳤다. 색소포니스트 남유선이 음악감독을 맡고, 재즈싱어 전송이, 베이시스트 이진우, 재즈 피아니스트 심규민이 참여해 무료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주민들은 신나는 음악에 맞춰 함께 노래도 불렀으며, 감동적인 노래에는 눈물을 흘리는 등 가슴이 따뜻한 행사로 진행됐다.

(기사제공: 이노비)

“성경공부는 꼭 담임목사가 하라”

뉴욕교협 이단대책협 세미나, 강사 한선희 목사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 산하 이단대책협의회(회장 유상열 목사)가 주최한 이단대책세미나가 지난 28일 퀸즈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소개에 나선 이종명 목사는 “뉴욕의 목회자들이 강사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잘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사 한선희 목사(세계 한인이단대책위원회 상임위원, 미주 기독교 이단대책연구회회장)는 “이단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웬만큼 대처해서 막기 힘들다(진화하고 있다)”며, “쉽게 알아보는 방법으로 1대1(2) 외부 성경공부가 있는데, 성경공부는 꼭 담임목사가 직접 가르치라. 이단들에 현혹되는 책임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보급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목회는 숫자가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목회의 본질을 알고 절대 경쟁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뉴욕교협 이단대책협 세미나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이날 한선희 목사는 신천지와 하나님의교회(구 안상홍), 신사도에 대해 강의했다.

한 목사는 신천지 창시자 교주 이만희가 영향 받은 전도관과 장막성전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교리적 특성(육체 영생, 성경을 모두 비유로 풀고, 신약은 이만희 예언서, 종교대통합)과 비판, 신천지 공부단계, 포교방법과 18가지 색출방법, 대책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설명을 했다.

구원받을 자 14만4천을 강조하는 신천지는 2015년말 15만명 교인이 있으며, 현재 85세 이만희가 김남희(만민의 어머니)라는 40대 여인을 후계자로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안상홍증인에서 이름을 하나님의

(유원정 기자)



생명의 성령의 법 신유세미나에서 이상관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신유를 통해 복음을 말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신유세미나, 강사 이상관 목사

생명의 성령의 법 신유세미나가 10일 뉴욕신광교회에서 시작됐다. 강사 이상관 목사(사랑의빛교회 담임)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거듭나서 예수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주님 주신 새 계명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님의 마음으로 행(사랑)해야 요단강을 건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특별히 “신유”라는 타이틀을 내건 것에 대해 이상관 목사는 “신유를 통해 복음을 말한다”며, “예전에는 복음 없이 신유의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당장은 치유를 받은 듯 보이나 물이 없어(마귀가)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목회자들 중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고 숫자적 성장을 이루고 열심히 뛰어나

고 있지만 주님과 관계없는 것을 전하면서 착각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목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예수님이 보이고 더 나아가면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보이며, 마지막에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인다”고 말하고 “내게서 나가는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는 것”(고전11:3)이라며 “내게서 주님이 안 나타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상관 목사는 이날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복음(신유) 교재를 중심으로 첫 언약과 둘째 언약(할례 언약, 새 언약), 속사람의 변화, 좁은 문으로 들어감 등에 대해 강의했다.

본 세미나는 4일과 5일, 다음 주인 9일부터 12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계속된다.

(유원정 기자)



극동방송 나라사랑 평화음악회 감사예배 및 위축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나라사랑 평화음악회 감사예배 및 위축식...6월 24일 카네기홀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 사장 한기봉 장모)가 창사 60주년을 맞아 뉴욕 카네기홀에서 나라사랑 평화음악회를 연다. 이를 위해 뉴욕에서 감사예배 및 위축식을 가졌다.

지난 26일 오전 11시 뉴욕호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 감사예배는 문석호 목사 인도로 기도 이종명 목사, 성경봉독 현영갑 목사, 뉴욕권사선교협장단의 특송, 설교 김재일 목사, 광고 박태규 목사, 축도 윤세웅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재일 목사는 “크게 외치라”(사 58: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오늘 본문은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크게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쁘고 즐겁다”며, 이 시대 방송매체의 힘에 대해 강조했다.

김 목사는 60년 역사의 극동방송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 귀와 마음과 영혼까지 사로잡는 세속적 쾌락적 방송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번 카네기홀 공연은 인터넷, SNS 등 수많은 전파 속에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극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로 바꾼 후 백인들이 증가해 현재 20만명으로 장길자 개인 홈페이지는 17개국어로 운영되고 있다.

한 목사는 안상홍의 구원론, 기독교론, 종말론 등에 대해 설명과 반증을 하고 CMR, 엘로림, 새생명복지회, 국제위보유운동본부 등의 연관단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사도(IHOP, 피터 와그너)는 한인 2, 3세대도 많이 연결돼 있다며 △휴거설 △24-7시스템 △초자연적 환상과 계시 △선지자, 선견자, 신사도 △Bi-location △치유수행 라이선스 △천속령 △trance에 설명했다.

질의시간에 한 참석자가 성현경 목사(가스펠웨로십교회, KPCA)에 대한 이단 여부를 묻자, 유상열 목사는 “교협은 연합단체로서 회원 노회에 소속된 목사에 대해 이단여부를 판결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소속노회의 협조를 얻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동방송을 한국에 세운 미국에 보답하는 감사 잔치”라고 소개했다.

2부 기도 및 위축식은 흥보영상 상영 후 이희선 목사와 전희수 목사가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안정과 평화통일을 위해 △스카네기홀 공연 어린이합창단과 참석자들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이어 방지각 목사가 극동방송을 대신해 자문위원(신현택 목사 외 7명)과 협력위원(김형택 목사 외 3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축사는 안창의 목사와 양승호 목사가 했으며 박태규 사무총장의 인사말이 있던 후 주기도문으로 마쳤다.

나라사랑 평화음악회는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500명이 출연하며 6월 24일(금) 저녁 7시30분 카네기홀 아이작스턴 오티토리움에서 개최된다.

티켓은 무료이며 관람은 교회별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박태규 목사((718)840-8931, John61511354@yahoo.com)에게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Advertisement for '청교도복음연구회 제 6회 정기세미나' (The 6th Regular Seminar of the Puritan Bible Study Society). It features the organization's logo, the title in large red and white text, and the theme '청교도와 성경교육' (Puritans and Bible Education) in blue. The background shows a historical sailing ship. Below the title, there are details about the date (May 30, 2016), location (May Flower and Plimoth Plant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ers, Kim Pil-sik and Lee Chang-jung. A list of speakers and topics is provided in a table format. The text is in Korean and includes specific dates, times, and phone numbers.

전 교인이 볼런티어로 사역하는 교회를 꿈꾼다!

리더십저널, 볼런티어 사역전문가 말린 윌슨의 볼런티어 리더십 체계 소개

머리카락부터 발가락까지 교회라는 온몸 구석구석 모든 지체가 활발히 움직이는 교회!

모든 교인이 각자 적합한 볼런티어의 역할을 할 경우, 교회는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간다면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게 될까? 교인들이 신앙에 대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 일한다는 평판을 듣는 교회는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할까? 교인들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한 소그룹 모임을 계속 만들어 활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성장하려면 프로그램들을 개선하거나 능력 있는 목회자에게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회에는 온전히 제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볼런티어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항상 목회 현장에서 제기돼온 문제이다.

콜로라도 주 보울더에 있는 볼런티어사역 전문단체 (Volunteer Management Associates)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말린 윌슨(Marlene Wilso)은 지난 35년 동안 교회 볼런티어에 관한 저술과 훈련 사역을 해왔다. 그녀는 볼런티어 리더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시스템 즉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수많은 볼런티어 단체와 교회에서 볼런티어 리더십 체계를 활용해 왔다. 이것은 조직 안에 '심장 이식'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 안에 일단 이 체계가 자리를 잡으면 그 조직은 볼런티어들에게 개방적인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될 뿐 아니라, 볼런티어들 역시 섬기는 일에서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볼런티어 리더십을 가진 단체와 교회는 어떠한 체계를 조직에 심었는지 기초인 4단계를 먼저 살펴본다.



1단계: 비전을 세우라

통합적 비전에 초점...그에 따른 사명과 목적, 목표 세워야 구체적 실천계획 세우기는 리더십 체계에 가장 핵심적 부분

비전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앞으로 5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준다. 비전은 우리가 미래에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를 결정하며,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의 뒤를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도 한다.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말로는 결코 볼런티어들을 모집할 수 없기에 반드시 비전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볼런티어 리더십은 보다 크고 통합적인 비전을 후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선언문이 없다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만들도록 권의할 것을 요청한다.

사명선언문을 작성하려면 선언문 작성에 적합한 사람들을 모으고, 간단명료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당신이 섬기고자 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정의해야 한다. 또한 당신이 그 일을 어떻게, 어디에서 수행할지를 개괄해야 하며, 작성된 사명선언문을 통해 교회가 변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단계: 목적과 목표를 세우라

볼런티어 리더십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목적과 목표가 간략하고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시간적으로 어떤 일이 언제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달력에 분명하게 기입하고, 수치화 할 수 있으면 수치화 하는 것도 좋다.

목표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종이에 적힌 내용으로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내용들로 이

루어질 것이다.

4단계: 실행계획을 짜라

실행 계획은 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을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도한 것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각 목표 밑에 바퀴를 다는 것이다. 목표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목표를 위한 바람직한 결과물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당신은 그런 목표들이 성공적으로 달성됐는지를 판단하는 법과 결속점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이처럼 볼런티어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비전과 그에 따른 사명과 목적 선언문, 그리고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을 세우는 것은 볼런티어 리더십 체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기초가 세워진 후 세부계획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올바른 리더십 체계를 세워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 본 받는 목회자 양성이 목표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미드웨스턴 침례신학원은 미국 남침례교단에서 설립한 6개 신학대학원 중 하나이며, 규모로는 미국 내 10대 신학교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미국 NCA(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의 HLC(the Higher Learning Commission) 및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등 최고기관의 최고인가를 보유한 최우수 학교입니다. 현재 한국인 재학생이 300명에 이르고 있고요."



적 모델연구를 통해 목회현장에서 실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박 박사는 미드웨스턴의 수업은 매우 타이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2년 전 한국어부 학장으로 사역하다 작년부턴 아시아부 학장으로 승진 사역하고 있는 박성진 박사는 미드웨스턴의 아시아부에는 한국어부와 중국어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희 학교 한국어부는 한국어로 진행, 최자의 등록금, 최고의 강사진, 미국 인증기관 최상위 평가, 그리고 M.Div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돼 전 세계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석사과정은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청강형식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고요."

박 박사는 미드웨스턴의 한국어부는 성경사역학 철학박사(Ph.D. in Biblical Studies with Biblical Ministries Emphasis), 교육목회학박사(D.Ed.Min), 목회학박사(D.Min), 그리고 온라인 목회학석사과정(M.Div Online)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경사역학 철학박사과정(Ph.D)은 미국내 주류신

"학생들이 사역자들이라 보니 사역과 학업을 병행하기가 버거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페이퍼 작성 때도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를 전개하도록 초점을 맞춰가다보니 비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클래스를 완전히 마칠 때는 기대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것으로 수업만 쪽도가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남침례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사역에서의 실제적인 대안제시, 그리고

NCA, ATS 인가, M.Div 과정 온라인 수강 가능...한인 300명 성경사역학Ph.D, 미 주류신학교 중 첫 한국어프로그램 마련

학교 중에는 최초로 한국어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Ph.D과정은 성경적 교회론을 바탕으로 교회목양사역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학위과정이며 세미나는 인텐시브로 운영된다.

"Ph.D과정을 개설할 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름만 Ph.D지 결국에는 업그레이드된 목회학박사과정(D.Min)으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교수진과 커리큘럼을 디자인할 때 부담감을 가지고 신경을 썼습니다."

박 박사는 "Ph.D과정은 성경적 교회론, 교회와 교회모델, 그리고 교회와 현대문화와의 대화 등 세 가지 전공필수과목으로 운영됩니다. 학생들에게는 궁극적으로 교회에 대한 역사적 성경적 안목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론의 토대가 교회성장학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지를 평가해볼 수 있는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 각자가 사역하는 교회들을 바탕으로 사역환경가운데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살펴볼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독특한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는 사역자들을 초빙해 그들의 사역철학을 나누며 어떤 모델로 사역을 해나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박 박사는 "교육목회학박사과정은 일반 교육학박사(Ed.D)와 동등 학위이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회 교육을 다루는 학위입니다. 목회학박사과정은 성경

이것이 신학적이고 실제적이라는데 감명을 가지고 수업이 이루어지다보니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교에서 강의하는 강사진 중에는 목회변증학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교), 목회교육학은 파이디온선교회와 함께하며, 양승헌 교수가 목회교육학 박사과정 교수로 참여하고 있다.

박성진 박사는 본교재학생들에 대한 바람으로는 "무엇보다 저희학교의 각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충성되고 삶 가운데 예수님 본받는 목회자가 됐으면 합니다"고 언급하며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은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느 학교에서 어떤 과정을 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어떤 인성을 가지고 목회하는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목회가운데 일어나야 하니까요. 학생들이 그 부분을 잘 배우고 각 과정 속에서 기술이나 스킬 배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마음 닮아가는 간절함을 가진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됐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박성진 박사는 한양대학교에서 재료공학과를 졸업(B.S.)하고 포항공대에서 재료공학석사(M.S.)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6년간 근무하고 1999년 도미, 달라스신학교에서 신학석사(Th.M)를 하고 신시네티에 위치한 히브리 유니온대학교에서 철학석사(M.Phil) 학위와 철학박사(Ph.D) 학위를 취득했다.

(박준호 기자)

진도에 날개를 달아라

이윤재 목사 (분당한신교회)
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
전병길 목사 (강남교회)
장경동 목사 (대전중문교회)
주성민 목사 (세계로 금관교회)

추천!!!

전도는 은사 받은 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최고의 전도서다.
한신교회 5년 연속 전도왕, 교단 2회 전도 우수상, 20여 교회 전도집회 인도 등 전도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귀족상 장로의 경험을 고스란히 담았기에 전도 내비게이션과 같다.

곽준상 지음 | 278면 | 13,000원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는 내리고

김진홍 지음 | 384면 | 13,000원

삼대지 설교뿐 아니라 4페이지 설교, 이야기 설교, 분석 설교 등 다양한 설교 구성 방법을 본문에 맞게 적용해온 저자에게 설교 기법을 배울 수 있어서 내용이나 구성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는 청주금관교회 김진홍 목사의 10번째 설교집.

아빠! 영생을 어떻게 드려요?

신앙고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거기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책에 신앙고백의 기본 설교 22편을 담았다.

아빠!
어떻게 영생을 사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요?

신상수훈은 천국시민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키고 추구해야 할 실제적인 삶과 규범을 가르친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다. 이 책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바로 알고 실천적 행함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천국시민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최명일 지음 | 360면 | 13,000원(각 권)